

한덕수 국무총리, 「2024 다보스 포럼」 참석

-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민간 주도의 국제 경제회의인 ‘다보스 포럼’에 참석
-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하 기후변화, 인공지능(AI) 등 주요 글로벌 현안 관련 우리 정책 방향 소개, 국제사회의 신뢰와 공감대 확대
- 포럼 참가 주요국, 기업 및 WEF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반분야 협력 모색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1.15(월)-1.19(금)간 3박 5일 일정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(World Economic Forum, WEF) 연차총회(“다보스 포럼”)에 참석할 예정이다.

※ 세계경제포럼 : 1971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출범한 글로벌 민간포럼(일명 다보스포럼)으로, 각국의 정계·재계·학계·언론계 지도자가 참석해 세계 경제 및 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

※ 이번 한 총리의 다보스 포럼 참석은 2009년(한승수 국무총리) 이후 우리 국무총리로서 첫 참석

○ 이번 다보스 포럼은 “신뢰 재건(Rebuilding Trust)”이라는 주제로 총 380여 개의 공개·비공개 세션 등을 통해 진행되며, 약 2,8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※ 주요 논의 주제 : ①신경제 정책 ②기후변화-에너지 ③인공지능 ④경쟁과 협력

□ 한 총리는 글로벌 체제의 신뢰 회복, 원자력 발전, 인공지능(AI), 태평양 지역 협력 등 주요 글로벌 현안 관련 여러 공개 및 비공개 세션에 참석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 비전을 공유하고,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.

□ 아울러, 한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한편, 글로벌 기업 대표, WEF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상호 관심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

※ (붙임)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(다보스 포럼) 개요. 끝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박영철 (044-200-2136)
		담당자	서기관	박철순 (044-200-2135)



가. 다보스 포럼 개관

- (정식 명칭)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
(Annual Meeting of the World Economic Forum)
- (설립) 1971년 클라우스 슈밥(Klaus Schwab) 회장이 유럽 기업인을 다보스에 초청, ‘유럽 경영 포럼’ (European Management Forum)을 개최한 데서 출발
 - 1987년부터 지역적 성격을 탈피, 범세계적 이슈 논의의 장으로 확대되었으며 매년 3,000여명의 글로벌 정치, 경제, 언론 리더들이 참석
 - ※ (우리 정상 참석 전례) △2010년 이명박 前대통령(최초 참석), △2014년 박근혜 前대통령, △2021년 문재인 대통령(화상) △2023년 윤석열 대통령
 - ※ 우리 국무총리 참석은 2009년 한승수 국무총리 참석 이래 최초
- (목적) 세계 각국의 분야별 지도자들 간 격식없는 접촉을 통한 의견교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세계 발전에 기여
- (역할 및 위상) 정계·재계·학계·언론계 글로벌 리더들이 주요 세계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

나. 2024년 다보스 포럼 개요

- 주 제 : “신뢰 재건(Rebuilding Trust)”
 - 핵심 의제 : 新경제 정책, 기후변화·에너지, 인공지능, 경쟁과 협력
- 일정 및 장소 : 2024.1.15.(월)-19.(금), 스위스 다보스
- 프로그램 : △주제별 공개세션 △비공개 행사 △부대행사 등 약 380개 행사 예정